
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
담당 부서 녹지정책과	배포일자	2023년 3월 15일(수) 총 2매	
	담당자	• 도시녹화팀장 황현목 ☎440-3691 • 담당자 공경화 ☎440-3692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올해 축구장 약 13개 크기 도시숲 조성
- 기후대응 도시 숲, 열섬·폭염·미세먼지 완화 등 환경개선에 효과적 -
- 올 연말까지 4개소에 90억 투입해 13만7천여 주 식재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올해 연말까지 열섬현상과 폭염 그리고 생활권 내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‘기후대응 도시숲’ 4개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.

기후대응 도시숲은 식물의 생리적 기능과 잎의 모양 및 숲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해 미세먼지 발생원이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, 미세먼지의 흡착·흡수를 통해 농도를 저감시켜 양질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숲을 말한다.

올해는 만월산 터널 주변 등 4개소*에 90억 원을 투입해, 축구장 12.6개 크기(9ha)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.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13만7천여 주를 심을 예정인데,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.

* 만월산 터널 주변,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, 청라지구(2개소)

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『도시숲 기능성 조사』에서 따르면, 도시 숲 8개소의 피톤치드 8종, 음이온, 환경소음도, 온·습도를 측정한 결과 도시 숲의 피톤치드 평균 농도는 259pptv로 3.1배 높게 검출됐다. 온·습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온도는 평균 2.9℃ 낮고, 습도는 12.3% 높아 도심의 열 환경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남동산단, 강화산단 주변 및 제2경인 고속도로,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주변 21개소에 23억4천만 원을 들여 축구장 약 46개 크기(총 33.05ha)의 도시 숲을 조성했다.

허홍기 시 녹지정책과장은 “생활권 내 열섬 및 폭염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

